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 여수시,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여수~고흥 간 해상교량 11개 건설로 해양관광활성화 기대

여수시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확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국비 5277억 원이 투입되는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연도교 건설사업은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 구간에 연도교 4개를 건설해 남면과 화정면을 잇는 사업이다.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은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되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남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또 권오봉 시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방문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는 연도교가 건설되면 돌산, 화양지역은 물론 여수 동부지역의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름다운 섬과 다리를 통해 '체류형 섬 관광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은 섬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세계 섬 박람회 기반 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돼 지역경제발전과 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현재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11곳 중 ▲돌산~화태(4km), ▲백야~화양(2.6km), ▲적금~영남(2.98km) 구간은 개통됐고, ▲안포~장수(7.3km), ▲화양~조발(2.05km), ▲조발~낭도(3.90km), ▲낭도~적금(3.64km) 등 화양에서 고흥 구간 연도교 4개는 올해 12월 개통 예정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 영암군, 대봉감말랭이 첫 수출기념식 가져



216kg 미국 수출

영암군은 28일 금정농협경제사업장 앞 광장에서 영암대봉감말랭이 첫 수출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 농협 진직 조합장 임원, 대의원, 각 사회단체장 등 약 120명이 참

석한 가운데 대봉감 말랭이의 첫 수출을 기념하면서 이루어졌다.

금정농협에서는 금년에 대봉감 말랭이 가공 생산 농가로부터 50여톤을 수매하여 이마트, 농협물류센터 등 국내 대형유통매장에 판매하였으며, 28일 대봉감말랭이 216kg을 시범적으로 농협무역을 통해 미국으로 첫 수출하게 되었다.

앞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이번 첫 수출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봉감 가공품을 유통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대봉감 가공산업육성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 강진군, 친환경재배 580만평 고품질 농산물로 차별화

강진군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시책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유기농 중심의 인증품목 다양화와 인증면적확대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유기농 중심의 인증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무농약 비인증 필지 중 과거 5년(5회)동안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받은 필지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이 중단되고,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비가 1ha당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미납자는 유기농업자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기농 중심의 특수시책으로는 유기농 종합보원지원, 유기단지 밭짓 환원지원사업 추진 등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친환경인증 품목다양화를 위해 친환경 농업 직불금 단가를 10원~20원씩 인상하는 것과 동시에 밭의 품목을 세분화해 과수와 일반작물로 나누어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무농약 비 인증 친환경실천농가들은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춰 유기 전환기 및 유기농으로 상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사 시작 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노령화로 친환경 재배가 어렵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논두렁 제초 및 물 관리를 제외하고는 유기 약제 공중방제 등 공중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에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친환경 기법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오랜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의 남용에 따른 유기 합성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면역력 증진과 건강한 땅을 만들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대책으로 평가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 곡성 토란, 전통 발효 식품으로 영역 넓혀

곡성 토란이 시장 확대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통 발효식품의 영역까지 행보를 넓히고 있다.

지난 25일 곡성군 토란웰빙식품명품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심청이아기마을 송정에서 토란을 활용한 전통 발효식품 시식회를 열었다. 그동안 아이스크림, 토란파이 등을 개발하며 토란에 익숙하지 않는 젊은 층을 공략했던 곡성군이 이번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익숙한 음식에 토란을 활용함으로써 더 넓은 시장 개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사업단은 이날 시식회에서 토란 전통발효식품으로 토란 전통 발효초, 토란청, 토란막걸리, 토란고추장을 선보였다. 또한 이외에도 토란가루, 토란차, 토란묵, 토란떡국 등을 내놓으면서 시식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유기농 곡성군수를 비롯해 시식회에 참석한 주민, 관계자 50여명은 토란 전통발효식품을 시식하고, 다양한 평가와 의견을 나눴다.

곡성=김광희 기자



# 무안군, 고령농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무안군은 고령농 증가에 따른 수확시기 일순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현안 농업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약사업인 고령농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농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트랙터, 농업용 드론, 밭용콤바인 등 다양한 농기계를 지원받은 지역농협이 논, 밭작물의 파종에서 수확까지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이다.

서비스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고령농(부녀농포함)으로 경작면적이 10,000㎡ 미만인 농업인이다.

군은 지난해 10월 각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재배작목 특성을 반영하여 농작업 대행 농기계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올해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위한 예산 10억5천만원을 확보한 상

황이다.

이에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2년까지 전체 고령농 경작농지 6천ha의 50%인 3천ha에 농작업 대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군은 올해 농업법인 및 단체에 농업용 방제 드론 20대, 지게차 30대, 곡물건조기 20대를 지원하는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외계층이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일손 부족을 해소하며 함께 살고 싶은 농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농협 간 상호 소통해 당면 농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 화순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내달 1일 군청 주차장...15개 농가·업체 참여



화순군은 오는 2월 1일 하루 '설 맞이 화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한다.

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순군청 뒤편 주차장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직거래장터에서는 15개 농가와 업체가 40여 종의 화순 지역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싼 값으로 판매한다.

주요 품목 아로니아 분말, 둥근마 분말, 홍삼정, 산채(파프리카) 떡국, 약과, 작두콩차, 수세미수액, 여주발효액, 돼지감자차, 울나무, 압나무, 불이나리 인진숙즙, 한과·강정, 유과 식초류, 새송이버섯, 토마토, 건 고사리·토란데·고구마순, 한라봉, 딸기, 파프리카 등이다.

직거래장터는 화순의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 소비자는 시중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 담양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한다

담양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색을 살린 독창적이며 실용적인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2019 담양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대상은 담양을 떠올릴 수 있고 상품화가 가능한 관광기념품이다.

공모전 접수는 오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며, 출품 희망자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출품작과 함께 담양군청 자치혁신국 녹색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 녹색관광과(061-380-3151)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